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변산반도에서 불어오는 미선나무 향기

몇 년 전 한 식물연구기관의 연구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내게 혹시 미선나무 식물세밀화를 그린 적 있는지 물었다. 몇 달 후 미선나무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포스터와 안내책자 표지에 미선나무 그림을 넣고 싶다는 것이다. 다행히 내게는 이전에 그려놓은 미선나무 그림이 있었고, 자료를 기관에 전달했다.

식물을 기록하는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와 비슷한 연락을 받곤 한다. 나는 특별한 사유나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의 목적에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편이다. 이 자료가 나에 의해 기록된 것일지라도, 기록의 주인공은 식물이고 식물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미선나무를 관찰해온 것은 약 15년 전부터다. 자생지의 개체는 아니고, 국립수목원에 식재된 개체로 처음 만났다. 키 작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관목원에

엔 조금 부족한, 노란빛이 강한 미색의 꽃잎이었다. 개나리와 전체적인 형태도 꽃향기도 닮았지만 꽃색이 흰 나무, 여름이 되어 그 나무에 다시 찾아갔더니 꽃이 있던 자리에 연두색의 하트 모양 열매가 달려있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며 연두색에서 분홍색으로 그리고 분홍색에서 갈색으로 물들어갔다.

미선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분포하는 한국 특산식물이다. 게다가 미선나무가 속한 아벨리오필록스 중 현존하는 식물은 미선나무 한 종뿐이다. 1속 1종의 귀한 식물인 셈이다.

사람 이름 같기도 한 미선이란 이름은 열매가 옛날에 쓰던 미선 부채 모양을 닮아 붙여졌다.

미선나무가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1세대 식물학자 중 한 분인 정태현 선생이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자생지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정태현 선생이 미선나무를 신종 발표한 것은 아니다. 동행한 조선 총독부 소속의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에 의해 명명, 발표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다.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은 한반도 특산식물 약 527종 중 327종을 명명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자생식물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를 빼고는 우리나라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선나무의 학명 맨 뒤에도 명명자 '나카이(Nakai)'가 붙는다. 미선나무는 일본명으로 우치와노키, 우리말로 부채나무라는 이름으로 '동경 식물학 잡지'에 발표되었다. 당시의 기종표본은 현재도 나카이 박사가 있던 도쿄대학교 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다행히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의 특산식물 중 연구, 보존이 잘 되어온 편에 속한다. 진천군과 괴산군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시작해 후에 발견된 자생지들이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보호받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미선나무가 처음 발견된 진천 자생지는 사람들의 훼손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몇 년 안 되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식물 중 히어리, 백양꽃, 진노랑산사화, 변산바람꽃, 노랑붓꽃 등은 전라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선나무도 마찬가지로이다. 미선나무는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도 분포한다. 충북에서는 매년 미선나무 축제를 열고, 자생지 근교 마을조차 미선나무 마을이라 이름 붙이는 등 미선나무를 지역의 식물로서 알리는 데 적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미선나무가 충북에만 자생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 또한 우리 지역에도 미선나무가 산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미선나무 꽃은 흰색이지만 종종 분홍빛의 분홍미선나무 그리고 푸른빛의 푸른미선나무도 볼 수 있다. 꽃잎이 네 장 달린 꽃도 있고 다섯 장 달린 것도 있다. 개나리의 장주화화과 단주화개념처럼 미선나무에게도 장주화화과 단주화 두 가지 형태의 꽃이 있다. 미선나무 한 그루에 담긴 이 다채로운 모습을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미선나무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미선나무는 증식되어 도시 정원수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다만 증식된 개체들은 자생지의 개체만큼 향기가 짙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공원과 공원 등지에서 만나는 꽃나무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분포하는 식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미선나무를 쉬이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식물 세밀화>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

황사와 호흡기 질환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실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습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먼지를 제거하고 실내를 자주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먼지가 많은 장소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마시며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황사는 겨울을 지나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많이 유입이 되는데 기온 차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때와 시기가 겹쳐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더욱이 황사로 인한 기침이나 인후통, 코막힘, 발열 등은 일반적인 감기와 유사해 일반 환자들은 구분이 쉽지 않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치료해야 한다.

황사 입자는 폐와 기도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한 입자들은 피부에도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스

크나 손씻기는 필수이다.

최근에는 중금속 입자들의 농도까지 더해져 호흡기에는 더욱 좋지 않다. 가래, 콧물, 발열,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미세먼지는 눈에도 각종 질환을 일으키므로 눈에 건조하지 않게 인공 눈물이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안과질환으로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이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도 유지하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황사는 물론 봄철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강화되면 황사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질병은 어느 경우든 예방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황사 예방과 조기 진단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방법을 잘 기억해 황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서 건강한 봄을 맞이하자.

社說

국힘 비례 '호남 홀대'...뒤로 가는 '서진정책'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 호남을 홀대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호남 홀대'를 놓고 친윤(친 윤석열)계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호남에서는 당선권 밖에 배치된 후보들이 사퇴하는가 하면 당직자와 당원들은 서울 중앙당사를 향한 표방하는 등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호남 홀대 논란은 국민의미래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권인 20위 안에 호남 인사는 순천 출신인 오영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세 명만 포함했기 때문이다. 반면 2022년 광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에선 역대 최고인 15%의 득표율을 기록한 주기한 전 광주시장 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세 확장에 기여한 김화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선권 배치 기대와 달리 24번과 22번을 받았다. 이에 주기한 전 위원장이 즉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호남 홀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궤멸 수준으로 약세를 보이는 당세 확장을 위해 그동안 '서진정책'이란 이름으로 공을 들여왔다. 중앙당은 당헌·당규까지 수정해 정당 득표율 15% 미만인 취약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우선 추천한다면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배정하기로 했다. 호남 당직자들 중 중앙당의 서진정책에 호응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00여명이 불과 하던 광주시장 책임당원을 1만3000명까지 늘렸다. 그런데도 중앙당은 정작 이번 총선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20위 내에 호남 출신을 25% 배정해야 하는데도 절반인 세 명만 추천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서진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호남 홀대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최대 취약지역인 호남을 대우한다면서 선거철에만 반쪽 찾아오고 협치에서 세 확장에 최선을 다한 당직자들을 홀대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22일 이전에는 순번 조정이 가능한 만큼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비자 규제 개선,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이냐

영양 등지의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들의 비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던 업계의 외국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남도가 최근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 인력(E-7) 고용비용 산정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 인력(E-7) 고용비용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가능 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인력(F-2, 50%)까지 합산했다. 이 때문에 외국 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

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 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했다.

앞서 전남도는 숙련가능 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과 특정활동외국인력(E-7)의 국민총소득(GNI) 완화(80%→ 70%), 고용허가제(E-9) 선선업 쿼터 신설(연 5000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비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외국 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노력해 왔다. 이번 성과 역시 인력 수급과 관련한 주요 사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전남도로서 조선업이 전라산업이자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심이 많이는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저자 박응련 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인터뷰하고 난 후 1주일 만에 4명에게서 산티아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이다.

먼저 한 행사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 2년 전쯤 알게 된 그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해마다 홀로 배낭여행을 떠난다. 첫 만남에서 남미에 다녀왔다는 말에 부러웠는데, 이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전하려는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 홀로 800km의 길을 걸었다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며칠 후 만난 B씨. 작은 사업을 하는 그는 15년 가까이 해외인 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볼까 생각중인데 어느 날 훌쩍 떠날 수도 있다며 웃었다. 내년이 장년인 C씨는 좀 다른 경우다. 홀로가 아닌, 절친들과 산티아고 길을 걸으며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했다.

예수의 제자인 성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 9세기부터 걷기 시작한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서 사람들은 지나는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연금술사'의 파올로 코엘료, '나는 걷는다'의 베르나르 울리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도 산티아고 길 위에서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정년퇴임 후 산티아고를 찾았던 박응련 전 청장은 1년 후 아내와 함께 같은 길을 다시 걸었다. 그 길에서 보물 같은 삶의

지혜를 얻은 그는 산티아고 전도사가 됐고 '산티아고 학교'를 운영중이다. 30여명이 참여한

산티아고 순례길

17기는 50~60대가 대다수로 최고령은 72세. 여성 비율이 70% 정도며 올해 출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중인 사람도 3명이나 된다. 정년에 맞춰 떠날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이들의 '로망'인 산티아고 길을 걷지는 못하더라도, 길을 걸으며 우리는 위로 받는다. 걷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동네 산책도 좋고, 우리 동네 무릎길이나 밧고을 산들길을 완주해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기고

페퍼저축은행의 새로운 꿈을 위한 제언

아가는 해프닝이 있었고, 다시 이고은 선수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심각한 현실도 있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일부 선수들 간의 마찰로 리그 중 선수들이 이탈하는 상황 발생했고, 주축 선수의 부진으로 팀은 연패를 거듭했다. 그대도 이경수 감독대행 체제에서 2연승을 기록한 것과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과의 대항 경기력을 보인 6라운드에는 내년 시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페퍼저축은행이기에, 배구 해설가 및 스포츠경영 전문가로서 필자가 생각하는 페퍼저축은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 선임 문제다. 외국인 감독 대부분은 우수한 선수들이 즐비한 곳에서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국내 구단처럼 선수들의 가용 폭이 좁지 않다.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하는 점을 열악한 선수자원으로 꼽는데, 결국 그들도 리그 후반에는 몇몇 주축 선수들로 공격 전술을 짜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국내 지도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선수단의 장악력과 구단 운영의 리더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 배구 환경을 잘 알고 선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국내 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 4명의 코치진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속속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알기엔 한계가 존재했고 선수들 간의 갈등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

다. 새로운 코칭 스태프에서 반드시 여성 코치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셋째, 구단의 훈련 장소와 경기 장소의 이원화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훈련과 경기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경기에는 최적의 장소이지만 훈련에 있어서 큰 체육관은 코치진과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별도의 훈련장 마련도 페퍼저축은행과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할 단계적인 과제일 것이다.

넷째, 배구경영 전문가의 영입이다. 아시아권, 외국인 드래프트, 신인선수 드래프트, 선수 연봉계약, 미디어 대응, 연고 도시와의 협업,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프로배구단의 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배구단 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사무국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사무국 직원들을 페퍼저축은행 소속으로 영입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의 보장을 통해 배구단 운영에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 6개월 후면 페퍼저축은행은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는 냉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단 목표 및 방향 설정과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께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우수한 선수들이 있더라도 선두들 간의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페퍼저축은행의 뼈를 깎는 변화가 있을 때 스포츠가 비로소 봄 배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KBS N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

지난 2022~2023 시즌 유독 프로배구와 관련된 페퍼저축은행의 기사들이 늘어났다. 시즌 중반 도로공사의 이고은 센터와 GS칼텍스에서 뛰던 리베로 오지영의 이적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2023~2024 시즌을 앞두고는 FA 최대어 중 하나인 박정아와 특급 용병 야스민 선수, 그리고 미국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조트린지를 영입했다. 배구계는 세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페퍼저축은행을 선두권을 위협하는 중상위권 전력으로 분류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조트린지 감독의 자율배구는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리그 초반 박정아와 야스민의 부진, 중앙 공격 불로직 지원에 대한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결국 23연패라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 모른다. 리그 전 선임된 아현 김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구단은 급하게 조트린지 감독을 투입으로 선임했다. 또, 거금을 들여 영입한 센터 이고은 선수를 보충선수로 묶지 않아 도로공사로 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주최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